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박 광 서* · 유 광 현**

-
- I. 서 론
 - II. 무역학 교육과 무역인력 수급
 - III. 무역학 교과과정 현황 및 분석
 - IV. 무역학 교육과정 개편 방향
 - V. 결 론
-

I. 序 論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전략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 2007년에는 수출 3,700억불, 무역규모 7,000억불로써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무역 1조불 무역8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국제무역학전공 조교수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국제무역전공 강사

강' 목표를 위해서는 성장동력으로써 신성장동력 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핵심인재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무한경쟁이 치열한 기업 경영환경에서 핵심인재는 전문적 과업능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조직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발전의 중추인 기업에서는 이러한 핵심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반면에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택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을 지나 'NG족'(no graduation; 취업을 위해 졸업 연기), '캥거루족'(대졸 후 부모 보호), '88만원세대'라는 용어들이 우리의 현실을 표현한지 오래다. 다시 말해서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에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더라면 교육과 무역현장 사이의 이러한 엇박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역학은 무역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60년대 출발하여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영학과·영문과와 함께 3대 학과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학부제 시행 이후 학문의 정체성 부족 및 교과과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무역학이 사회와 기업에서 바라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및 기업의 니즈에 따른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선, 우리나라 무역학 교육의 연혁, 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선행연구 등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 현장의 차이를 조망해 보았다. 다음으로 학과명칭, 교과과정을 우리나라 전체대학 및 글로벌무역전문인력양성사업단(GTEP)으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끝으로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편방향으로써 특성화(specialty)와 컨버전스(convergence)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교과과정의 개편 및 실행은 정부 및 학교당국의 의지와 구성원인 교수진 및 학생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본 논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모쪼록 한국경제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는 貿易興邦의 국가목표에 우리 무역학이 과거와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II. 무역학 교육과 무역인력 수급

1. 무역학 교육 발전과정

(1) 1960년대 무역학 교육

국내대학에서 무역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근간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무역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무역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교과과정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비롯하여 무역학 고유과목이라 할 수 있는 무역실무, 무역영어, 무역관계법, 법학과목, 무역이론 등이 중심이었다.

(2) 1970~80년대 무역학 교육

정부가 무역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무역학과에 대한 인기 또한 상승한 시기로 무역학과의 전성기다. 특히 정부의 입학정원 자율화 지침에 따라 상경계열의 단과대학에 무역학과를 적극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무역학과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거의 100개에 이르게 되었다.

교과과정은 전통적인 무역학 과목에 국제자본이동 자유 및 다국적기업 활동 증대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자본이동론, 경제통합론, 다국적기업론, 국제마케팅 등이 추가되어 무역학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3) 1990년대~현재 무역학 교육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대학에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요구하였는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한 학부제를 요구하였다. 학부제가 1998년에는 명문 규정으로 시행되어 많은 대학들이 학부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무역학과가 경제학과, 경영학과 또는 기타 학과와 통합되거나 학과 자체가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무역학의 학문적 영역의 축소 또는 학문적 체계가 흔들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부제 시행에 따른 세부 전공 과목의 폐지 또는 감소는 다양한 전공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대응능력을 키워야 하는 예비 무역인력인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

교과과정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 FTA 등 지역주의 심화에 따라 국제통상정책 및 전략분야가 중시되어 국제통상(정책)론, 국제협상론, 국제통상법 등의 과목들이 개설이 되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이 중시되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이 회화 중심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외국어 교육과는 별도로 주요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관습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권역별 지역론(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 남미 등)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2. 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역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07년 7월에 실시한 ‘무역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무역인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면, 무역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 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져 2008년 2,016명에서 2012년에는 두 배가 증가하여 4,731명의 공급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향후 무역인력 수급 추이¹⁾

		2008년	2010년	2012년
수 요		11,200명	12,500명	14,700명
공급	대학기관 ²⁾	8,334명	8,666명	9,119명
	민간교육기관	850명	850명	850명
	소 계	9,184명	9,516명	9,969명
과 부 족		-2,016명	-2,984명	-4,731명

1) 한국무역협회, 국내수출기업의 무역인력 현황 및 애로조사, 2007.7.23~7.30, (조사대상: 421개사)

2) 대학기관(전문대학, 산업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의 공급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통계를 토대로 작성

기업이 원하는 무역 전문인력의 역량은 <표 2>와 같이 수요자인 기업의 특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해결 역량, 파트너쉽 역량, 무역실무역량, 특정산업 및 제품에 관한 지식 역량, 자율학습 역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 2> 무역 전문인력 필요 역량³⁾

관 점	무역전문인력 역량
상 공 인 관점	· 무역실무 역량, ·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 파트너쉽 역량 · 현지적응 역량, · 인적 유대강화 역량
무역상사 관점	표준적 인력(generalist) ⇨ 특화된 전문인력(specialist) · 개인 역량 : 자기개발을 노력하는 프로페셔널 · 글로벌 역량 : 국제적 감각 및 외국어 능력 · 조직인 역량 : 조직인 역량을 보유한 협력자 · 가치 역량 : 인간미, 도덕성, 도전정신, 열정을 지닌 성취인
대 기 업 관점	· 업무추진력 :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 · 전문직업인 : 동종업계 최고를 인정 · 유연성 :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 · 자율적학습 :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 시장가치 향상 · 글로벌 역량 : 다문화의 국제환경 속에서 영업 수행

상술하면 <표 3>와 같이 무역업체가 무역인력에게 가장 요구하는 전문 지식으로 외국어능력, 무역실무 지식, 그리고 제품 지식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무역실무의 중요성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품 지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무역학 교과과정은 무역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3) 김학민,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기반의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2004. 8. p.244를 참조하여 일부 변경

<표 3>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전문인력의 능력추이⁴⁾

(%)	2000년	2002년	2007년
외국어 능력	39	42	57.2
무역실무 지식	42	30	25.2
제품 지식	17	20	15.2
인터넷 활용 기술	1	7	0.5
기타	1	1	1.9
합 계	100	100	100

한편 대학에서 배출되는 무역인력의 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대졸 신입 사원의 무역업무 적응력을 묻는 설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표 4>와 같이 전면적인 재교육 또는 1년이상 수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에 달하며, 1주일 정도의 업무프로세스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6.2%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인력의 전문지식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실제 대학의 무역교육과정의 불일치로 인해 대졸 무역인력의 실무능력 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신입사원의 무역업무 적응력 현황⁵⁾

구 분	비 율	
전면적인 재교육 필요	54명 (12.8%)	219명 (52%)
1년 정도의 수습기간 필요	165명 (39.2%)	
1개월 정도의 현장실습 교육은 필요	178명 (41.8%)	
1주일 정도의 업무프로세스 교육만으로 충분	26명 (6.2%)	

4) 2000년·2005년 자료: 하명근, “우리나라 무역인력 양성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한국무역학회 제2차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3, p.43, 2007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계 설문조사

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계 설문조사, 일부 변경

3. 무역학 교과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에 무역학과가 개설된 이후 무역학의 정체성과 교과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좁아진 무역학과와 입지 등에 따른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학회차원에서 무역학 발전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 연구는 무역상무 중심의 교과과정 모형개발과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방안,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무역 전문인력 양성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편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원배⁶⁾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실무의 강화 차원에서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적인 접근, 전자무역, 무역영어 관련 교과목 확충 및 학과명칭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김학민⁷⁾은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산학협력과 아울러 전자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목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홍성규⁸⁾는 일본대학의 무역학(상학)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무역학 교과과정에 무역상무 중심의 재편과 법학 관련과목, 외국어, 지역연구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강원진⁹⁾과 한재필¹⁰⁾은 미국의 법학대학원 및 경영대학원과 영국의 법학대학원의 교과과정 비교를 통한 국내 무역학 교과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¹¹⁾가 있었는데 이들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다. 교과과정의 개편은 특정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설해야하며, 특히 무역상무영역의 확충을 주장한다.

6) 김원배, “무역학과 교과 과정 현황과 방향 모색”,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2005. 3

7) 김학민, 전계논문

8) 홍성규, “일본대학의 무역교육분석을 통한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2004. 9

9) 강원진, “미국에서의 국제상학의 연구동향과 한국에서의 연구방향”,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2000.

10) 한재필, “무역학의 원류발견을 위한 영국 노팅햄대학교 법과대학원과 한국대학의 무역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1호, 2005. 3

11) 김원배, 전계논문, p.249

둘째,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의 일치이다. 대학들이 비슷한 교과과정을 개설하면서 학과명칭을 달리하여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과 선택에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학과명칭에 일치하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업 적응능력 배양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무역학 전공자는 무역을 하기에 적합한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기본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넷째, 환경변화에 발맞춘 교육이다. 최근에는 전자무역의 방향이 큰 트렌드였다. 따라서 전자무역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자무역에 따른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과정 또한 필요하다.

Ⅲ. 무역학 교과과정 현황 및 분석

1. 무역학 교과과정 현황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와 해외사례(일본, 미국)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법적으로는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적으로 일본사례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의 학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무역학과의 초창기 모습이었던 상학과의 명칭이 일본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점과 양 국가 모두 무역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개설과목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토하였다. 반면에 미국사례는 우리나라와 학제와 교과과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국내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려 및 미국 학위 교수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국내 교과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였다.

둘째, 방법적으로 학과명칭은 무역학과의 교육목표 및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즉, 학부제 실시 이전 무역학과로 통일되었던 학과명칭이 학부제 실시 이후 통합 주체 학과에 따라 교과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학생유치를 이유로 사회적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과과정은 무역학이 어떤 학문분야로 구분되는지와 분야별 비중을 분석해 무역학 교과 과정의 학문적 특성과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적응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우리나라 현황

(가) 학과명칭

무역학과는 연혁적으로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의 특수한 여건에서 초기부터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다. 또한 WTO출범과 FTA확산으로 무한경쟁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역학과는 다른 학과에 통·폐합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이 가장 큰 학과이다.

현행 학과명칭의 문제점은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학부명칭 아래 무역학을 하나의 전공으로 두거나 무역학 전공을 폐지한 대학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국제통상이라는 올바른 개념적 정의를 갖지 않은 채 전공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무역학과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던 학과명칭이 학부제 실시 이후 경영·경제학과와 통합 또는 국제통상학과로 전환하였다. 또한 1998년과 2004년 국내 4년제 대학들의 무역관련 학과의 명칭을 비교했을 때 1998년까지 사용되었던 학과 명칭이 2004년에는 상당수 개명되었음을 보여준다.¹²⁾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 명칭이나 무역전시컨벤션, 유통정보학과 등은 신입생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개명도 있었다.

12) 김원배, 전계논문

<표 5> 무역관련학과 명칭 현황 (2004년)¹³⁾

명 칭	대학 수
무역학과 존속 또는 무역학 위주 학부	15개
경상학부 명칭을 지닌 대학	11개
경영학부 명칭을 지닌 대학	16개
경제통상학부 또는 경제무역학부	18개
국제통상학과 또는 국제통상학부	14개
기 타	23개
합 계	97개

(나) 교과과정

무역학은 초기에 국가간의 상품, 용역, 자본 거래를 포함한 국제상거래 현상을 실무적·이론적·정책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초창기에 무역상무분야, 무역이론 및 정책분야, 무역경영분야로 구분되었으며, 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통상분야, 지역학연구분야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복합학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초창기 무역학과는 50년대 일본에서 무역실무를 전공한 교수가 중심인 무역상무 중심의 학과이었다. 이후 무역학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경제학과 경영학을 도입하여 무역학의 기본 교과과정으로 무역상무·국제경제·국제경영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207개 대학 중 개설 교과목 등을 근거로 하여 무역학과로 구분될 수 있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는 93개이다. 이들 학과를 대상으로 교과과정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13) 윤충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6. p.92~96, 요약 정리

<표 6> 무역학 교과과정 개설 현황 (2006년 7월 기준)¹⁴⁾

	50개교 이상	40개교 이상	30개교 이상	20개교 이상	10개교 이상	
개 설 과 목	국제무역론 무역영어 국제통상관계론 국제마케팅 국제운송물류론 국제금융론 국제경영학 무역실무 전자상거래 신용장(결제)론 통계분석 기타 (11개 과목)	전자무역론 경제학원론 거시경제학 외환관리론 해외경제 해상보험론 경제기타 무역정책론 국제경제학 무역환경 미시경제학 (11개 과목)	무역계약론 상사중재론 각국경제론 한국무역론 사이버무역 국제기업론 경제수학 국제재무관리론 경영학원론 시사영어 무역관계법 전자무역실습 무역상무 (13개 과목)	중국어 해외투자론 마케팅 컴퓨터기타 국제통상정책 현장실습 국제경영전략 디지털 통상협상론 유통학개론 해외시장조사론 관세법 (12개 과목)	회계원리 기업재무/회계 영문통상규범 경제통합론 국제경제기구 국제지역세미나 한국경제(통상) 무역정보론 국제산업 무역상품학 무역영어회화 무역관습론 국제금융시장론 국제경영사례 경제사 국제협상 (16개 과목)	
	무역상무 : 4 국제경영 : 2 국제경제 : 3 국제통상 : 1 지역학 : 0 외국어 : 0	무역상무 : 3 국제경영 : 0 국제경제 : 6 국제통상 : 1 지역학 : 1 외국어 : 0	무역상무 : 7 국제경영 : 3 국제경제 : 2 국제통상 : 0 지역학 : 1 외국어 : 1	무역상무 : 5 국제경영 : 3 국제경제 : 0 국제통상 : 2 지역학 : 1 외국어 : 1	무역상무 : 4 국제경영 : 4 국제경제 : 3 국제통상 : 5 지역학 : 0 외국어 : 0	
영 역 별 비 중	무역상무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통상	지역학	외국어
	23(36.5%)	14(22.2%)	12(19%)	9(14.3%)	3(0.5%)	2(0.3%)

현재 무역학 교과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무역상무영역으로 전체에서 36.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전공과의 학문적 차별

14)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신표준교과과정의 수립을 위한 연구, 2006. 12, pp.19~23을 참조하여 재작성

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역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국제경제가 22.2%, 국제경영이 19%를 차지하여 무역학과의 교육이 무역상무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와 국제경영영역이 보조가 되는 초창기 무역학과 교과과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수요의 부응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영역으로 논의가 되었던 국제통상영역, 지역학영역, 외국어영역 중에서는 국제통상영역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 여타 영역은 교과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학과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 사례

무역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무역에 관한 연구는 17세기 영국에서 국민경제 입장에서 연구가 시초이다. 무역경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20세기에 접어들어 미국과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가) 일본 사례

일본에서는 무역학을 상학(commerce)이라 부른다. 상학이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국내외 유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상업 활동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실천적인 교과과정에 의해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국내외 유통과정을 연구하는 상학, 기업회계를 취급하는 회계학, 기업경영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 등 3가지로 동일한 상학과와 명칭을 쓰더라도 대학마다 내용이 상당히 다르며, 대학에 따라서는 경영학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경우도 있다.

일본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부)명칭은 상학과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상업학과, 무역학과, 국제상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상학부를 설치한 대학은 1903년에 메이지(明治)대학이며, 이후 와세다대학 상학부가 이듬해에 개교를 하였으며, 이후 많은 대학에서 개설을 하였다. 1970년 전후 한국 대학들은 정부의 권유에 의해 상학과에서 무역학과로 개편하였으나 일본은 상학부(과)의 명칭을 고수하면서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편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7> 일본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명칭

학과명칭	상학과	상업학과	무역학과	국제상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기타	합계
학교 수	32개	3개	3개	3개	3개	14개	58개

상학부(과)에서는 대부분 국제상거래를 중심으로 법률기초, 기간과목, 전공심화과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역학과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원칙적으로 상학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상학의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영학, 경제학 과목도 기초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기초과목으로 상학, 상품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 기초분야를 학습하고, 기간과목으로 금융론, 유통론, 마케팅론, 무역론, 시장조사론, 경영분석 등을 배운다. 전공과목은 대학마다 특색이 있어 각자의 희망진로에 따라 전문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적고, 폭넓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대학이나 공통된 특징이며, 또한 최근에는 국제화에 대응하여 어학교육이나 국제관계 교육을 충실히 시키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¹⁵⁾

한국의 교과과정과 차이점은 법학 관련 과목(민법,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연습수업(세미나)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대학에서 1학년에는 입문·교양 세미나를, 3~4학년에는 주제별 세미나를 개설하고 있다. 영어 이외의 다양한 제2외국어 과목이 단계별(강독, 회화, 시사 등)로 개설되어 있다.

(나) 미국 사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학부를 두고 있는 곳은 1881년에 개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Wharton School of Commerce and Finance)이며, 이후 약 20년 후에 시카고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뉴욕대학 등에 상학부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학부과정에서 무역관련 학과를 개설하지 않고,

15) 홍성규, 전계논문, p.333

무역상무 분야의 연구는 주로 대학원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로스쿨이나 일부 비즈니스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상무분야 연구의 주요 과목인 결제, 계약, 운송, 보험, 중재, 통상법 등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있으나, 과목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주로 법리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므로 관련법제나 상관습을 두루 공부할 수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한편 George Mason University와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의 비즈니스스쿨에서는 국제통상 및 정책과정, 운송 및 물류전공 과정, 무역전공 경영학 석사과정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국제물류 및 위험관리, 전자상거래 그리고 협상 등의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⁶⁾

2. GTEP 참여 대학 교과과정

본 연구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학 교과과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시키기 위해, 무역학 특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이하 'GTEP'이라 칭함)¹⁷⁾에 선정된 19개 대학을 중심으로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16) 강원진, 전계논문, pp.3~5

17)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global trade expert program)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무역1조볼, 무역8강' 목표를 달성코자 산업자원부가 2007년 7월부터 전국 19개 대학 사업단을 선정하여 실시한 2년 단위의 무역인력 양성 사업임.

(1) 학과명칭

<표 8> GTEP 참여 대학의 학과명칭 현황¹⁸⁾

분류 \ 대학 · 학과명	대 학 명	학 과 명
1. 경영학부(과)	1. 강원대학교 2. 충북대학교	무역학과 국제경영학과
2. 경제통상학부 · 과 or 경제무역학부 · 과	1. 계명대학교	통상학 · 전자무역학
3. 무역학과 or 무역학 중심 학부	1. 경희대학교 2. 목포대학교 3. 영산대학교 4. 인천대학교 5. 전북대학교 6. 충남대학교 7. 한남대학교	무역학부 무역학과 국제무역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무역진공 무역학과
4. 국제통상학부(과)	1. 건국대학교(충주) 2. 경성대학교 3. 경일대학교 4. 동국대학교 5. 숭실대학교 6. 영남대학교 7.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부
5. 기타	1. 광주대학교(경상복지) 2. 안양대학교	e-business학과/중국통상학과 무역유통학

GTEP에 선정된 대학들의 학과명칭은 2004년 무역관련 학과명칭 현황을 조사한 윤충원의 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후자는 경제학부 또는 경영학부 내에 무역학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강원대(경영대학), 계명대(경제통상학부), 광주대(경상복지대학)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무역학 또는 통상학 위주의 학부(과)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학과명칭 또한 19개 대학 중 3개 대학(계명대, 광주대, 안양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무역학 내지 통상학으로 통일되어 운영하고 있어 전

18)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

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비해 무역학을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 임을 알 수 있다.

(2) 대학별 교과과정 분석

대학별 교과과정은 전술한 전체 무역학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무역상무분야로 전체 과목에서 3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국제경제분야 20%, 국제경영분야 19%를 차지하고 있어 무역학을 특성화를 지향하는 대학의 교과과정도 무역상무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와 국제경영의 보조라는 일반적인 대학의 교과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9> 무역학 교과과정의 영역별 비중

	무역상무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통상	지역학 연구
전체 대학	36.5%	19%	22.2%	14.3%	0.8%
GTEP대학	30%	19%	20%	9%	15%

한편 국제통상분야는 9%로 전체 대학과 비교했을 경우 약간 비중이 줄었으나, 반면에 지역학 및 어학 분야에서는 15%를 차지함으로써 전술한 분석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일차적으로 일부 대학에서 영어뿐만이 아닌 제2외국어의 과목 증가와 함께 중국 관련 과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GTEP 선정대학이 지역별 배분 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즉 국제운송 및 물류분야를 특화하고자 하는 인천지역과 경상권 대학의 지역학 및 외국어 과목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시대별 무역학 교과과정의 영역별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건국대학교(서울) 국제무역학 전공의 교과과정을 대학요람을 통해 연구하였다. 물론 특정 대학의 교과과정 추이를 전체 무역학과의 교과과정으로 일반화하기는 논리의 비약이 있지만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시대별 국제무역환경에 따른 교과과정의 보편성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시사한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GTEP사업 참여대학 교과과정 영역비중

영역 대학명		국제 상무	국제 경영	국제 경제	국제 통상	지역학 외국어	특수 분야	기타	Total
합 계		235 (30%)	147 (19%)	158 (20%)	70 (9.0%)	120 (15%)	20 (3%)	30 (4%)	780 (100%)
서울	경희대학교	14 (37%)	5 (13%)	8 (21%)	3 (8%)	5 (13%)	3 (8%)		38 (100%)
	동국대학교	6 (33%)	1 (6%)	6 (33%)	4 (22%)	1 (6%)			18 (100%)
	숭실대학교	10 (26%)	7 (18%)	7 (18%)	7 (18%)	5 (13%)		2 (5%)	38 (100%)
수도권	강원대학교	14 (44%)	10 (31%)	4 (13%)		2 (6%)		1 (3%)	32 (100%)
	안양대학교	7 (21%)	15 (45%)	8 (24%)	1 (3%)		2 (6%)		33 (100%)
	인천대학교	14 (33%)	8 (19%)	9 (21%)	1 (2%)	10 (23%)	1 (2%)		43 (100%)
	인하대학교	22 (22%)	7 (7%)	18 (18%)	8 (8%)	42 (43%)		1 (2%)	98 (100%)
충청권	건국대(충주)	16 (41%)	9 (23%)	8 (21%)	2 (5%)	1 (3%)	1 (3%)	2 (5%)	39 (100%)
	충남대학교	18 (46%)	1 (3%)	7 (18%)	6 (15%)	5 (13%)	2 (5%)		39 (100%)
	충북대학교	6 (18%)	12 (36%)	5 (15%)	3 (9%)	7 (21%)			33 (100%)
	한남대학교	9 (24%)	9 (24%)	7 (18%)	8 (21%)	4 (11%)	1 (3%)		38 (100%)
전라권	광주대학교	9 (23%)	17 (43%)	3 (8%)			3 (8%)	8 (20%)	40 (100%)
	목포대학교	13 (39%)	6 (18%)	7 (21%)	3 (9%)	2 (6%)		2 (6%)	33 (100%)
	전북대학교	13 (36%)	4 (11%)	13 (36%)	3 (8%)	3 (8%)			36 (100%)
경상권	경성대학교	8 (24%)	4 (12%)	8 (24%)	2 (6%)	9 (26%)	2 (6%)	1 (3%)	34 (100%)
	경일대학교	11 (28%)	3 (8%)	9 (23%)	4 (10%)	10 (26%)		2 (5%)	39 (100%)
	계명대학교 (전자무역)	9 (30%)	7 (23%)	5 (17%)		1 (3%)	2 (7%)	6 (20%)	30 (100%)
	계명대학교 (통상)	9 (23%)	9 (23%)	12 (31%)	7 (18%)			2 (5%)	39 (100%)
	영남대학교	10 (24%)	9 (21%)	10 (24%)	7 (17%)	5 (12%)		1 (2%)	42 (100%)
	영산대학교	17 (47%)	4 (11%)	4 (11%)	1 (3%)	6 (17%)	3 (8%)	1 (3%)	36 (100%)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7년에는 무역상무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영과 국제경제영역이 거의 대부분의 교과과정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국제통상, 지역학 연구분야로 학문의 범위가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무역상무 영역의 축소로 인한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서 기대하는 무역실무 인재양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역상무영역에서 초기 중요시했던 법학 관련 과목¹⁹⁾이 2007년에는 무역관계법 1과목만 개설된 것은 무역학 교과과정에서 법학 관련 과목의 소외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국제무역학과 교과과정 변천 추이²⁰⁾

연도	무역상무	국제경영	국제경제	국제통상	지역학	특수분야	기타	합계
1967년	20	10	15		1		3	49
1981년	13	5	10		3		3	36
1996년	10	3	11	1	1		2	28
1997년	8	8	11	3	1			31
2007년	13	10	12	5	5	1	1	47

* 1967년은 확보 가능한 가장 오래된 교과과정이며, 1996·1997년은 학부제 시행 이전과 이후, 2007년은 가장 최근의 교과과정임

IV. 무역학 교육과정 개편 방향

1.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전제(방향성)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무역학 교과과정의 문제점 및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무

19) 법학관련 과목 : 민법대의, 상법일부, 헌법, 회사법, 담보물권법, 어음수표법, 해상보험법 등 총 7개과목이 개설되었음.

20) 자료 : 해당 년도의 건국대학교 요람

역전문인력에 관한 수요자(기업)의 입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의 일치 필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설된 무역학과는 1990년대 초반까지 무역학과라는 명칭으로 100여개의 대학에 개설되어 한때 경영학과와 영문학과와 함께 3대학과로서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경영학과 또는 경제학과와의 통·폐합, 통상관련 학부(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의 방편으로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선행연구는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과 교과과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학과명칭을 기존의 무역학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무역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신입생 유치가 절실한 대학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무역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현행 다양한 학과명칭을 획일적으로 무역학과로의 복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개선해야할 점은 학과명칭의 단일화보다 교과과정의 표준화라고 생각한다. 상술하면, 무역학과 명칭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비슷한 교과과정을 유지하면서 명칭만 변경하는 무의미한 특성화가 자칫 무역학 교과과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학과명칭의 다양화와 비차별적인 교과과정을 지양하고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의 일치를 통한 해당 분야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2) 분야별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필요

① 글로벌무역 전문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전자무역의 확산 등으로 무역인력의 역량도 과거 대금결제, 환급, 통관 등 무역실무 능력에서 외국어능력, 지역 및 이문화연구, 제품지식, IT활용 능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무역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어 기업의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기업의 우수한 인재 확보 어려움은 무역인력의 수급불균형과 질적수준의 저하로 인해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 무역인력 공급기관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구체적인 역량 분석과 수요예측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무역인력 공급경로의 왜곡 및 인력 양성의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 따라서 무역인력의 주된 공급원인 무역학과에서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편에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실용적인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의 개편은 외국어능력, 무역실무, 전자무역, 사례분석, 현장실습 등을 강화하는 실무형 글로벌무역인력 양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② 국제마케팅 전문가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유지하였던 수출활동은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마케팅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대내외적인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품지식과 함께 외국 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의 확보를 통한 국제마케팅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역학의 교과과정도 이상과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국제마케팅 교육에 보다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마케팅 교육의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강화이다. 특히 정부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속하는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에는 대략 5~10년 정도의 시차²¹⁾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동 사업으로 인해 육성되어질 신성장 산업들이 5~10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산업의 성장을 할 것이며, 확보된 경쟁력을 통해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핵심 지역권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

21) 1960년대 초반 경공업 위주의 산업발전전략은 1970년대 초반부터 경공업제품이 주력 수출상품이 되었으며, 이후 197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1980년대 중반이후 해당 제품을 주력 수출상품으로 이끌었다.

이 선진국 중심에서 점차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 상관습, 언어 등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펴야 되기 때문이다.

③ 통상 전문가

공산품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입국형 통상정책’에서 WTO출범으로 인한 개방 확대,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한 ‘선진국형 복합 통상국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전문화된 통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통상 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조직적인 양성노력이 필요하다.²²⁾

정부도 통상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급여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한 여건 조성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상교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출발은 대학이므로 통상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역량을 지닌 대학에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서비스무역 전문가

UR협상 타결이후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WTO 다자간 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타결 시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FTA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비스무역은 전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총생산액은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서비스산업과 서비스교역의 중요성은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 수출 중심의 교역구조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수지의 적자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무역규모에 있어서도 2005년 기준으

22) 한국무역협회, 전게서, p.799

로 상품 수출의 경우 세계 12위였으나 서비스수출에 있어서는 세계 18위를 기록하여 여타 국가에 크게 뒤져있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정부지원 등을 통해 낙후되어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무역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서비스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⑤ 운송·물류 전문가

물류가 단지 제조·유통만을 지원하는 수송·보관·하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가공·조립·포장 및 물류관리·컨설팅 등 서비스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생산·유통 활동이 국제화되면서 물류서비스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M&A를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국제화하면서 다국적 생산·유통 기업들에게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물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영세성과 물류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물류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학의 교과과정에서도 이러한 무역과 물류산업의 상호연관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대부분 무역학 교과과정에서 국제물류 분야를 무역계약 이행을 위한 한 단계로써 국제운송에 관한 내용만을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물류는 무역상무 영역인 수송·보관·하역 등의 국제운송 과정만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의 영역이라는 점과 다국적기업의 핵심기업 활동인 글로벌SCM전략 등이 존재하는 국제경영영역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과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⑥ 전자무역 전문가

21세기! 속도의 시대에서는 어느 기업이 먼저 거래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에서 계약·운송·대금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전자무역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무역업무 중 통관·물류 업무는 이미 전자화되었고, 외환·상역은 20% 정도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무역업체는 물론이고 수출입 유관기관·관세사·선사·항공사, 무역서류를 중개 서비스하는 포워드·은행 등 42,000여 곳이 전자무역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전자무역의 활용으로 인해 연간 1억9천만 건의 수출입 관련 문서 거래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거래가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업무 처리비용 절감액도 연간 2조5천억원에 이르러 갈수록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²³⁾ 이러한 전자무역 전문가 양성은 국가의 계속된 정책과제이며 특성화 분야로 육성되어야 한다.

⑦ 지역 특화를 위한 무역전문가

지자체의 독립·자율성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가 지리적 위치, 지역특화도, 산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특화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소재 대학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무역전문가 양성에 주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 특화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당해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아울러 주된 수출 지역권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무역학 교과과정에 관한 개편방안

대학의 교과과정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왔으며 앞으로도 국제무역환경 및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통상·전자·지역·마케팅 등 다양한 내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수요자 측면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모두 수용하기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선택(differentiation)과 집중(focusing)전략'

23)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11, p.327

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역학 교과과정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컨버전스(convergence)와 특성화(specialty)를 제안하고자 한다.

무역학 교과과정의 컨버전스와 특성화는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밀접한 개념이다. 이는 지역별·대학별 특성화를 위해서는 무역학과 자체적으로 많은 교수의 확보와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 개설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특성화와 연관된 인접학문 및 관련학과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즉 ‘특성화를 위한 학제간 컨버전스’ 또는 ‘컨버전스를 통한 특성화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두 개념을 고찰해야 한다.

(1) 컨버전스(convergence)

컨버전스는 무역학 자체가 무역상무·국제경제·국제경영을 아우르는 복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전술한 개편 방향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역학과 역량만으로는 학문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역학과는 모든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교육을 수행하고 심화교육은 개별 특성화 방향에 적합한 인접학문 또는 관련학과와 연계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첫째, 무역관련 필수 커리큘럼의 수립 및 시행이다. 무역전문인력양성은 사회 및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역관련 필수 교과과정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특성화 심화학습에 앞서 기본 교과목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과목은 대학별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표준화하여 1~2학년 과정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간의 특성화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역학의 학문적 영역을 공고히 하여 무역학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대학별 특성화 분야의 선택이다. 대학별 비교우위가 있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존재 여부, 속해 있는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관성, 향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다른 전공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연계가능 전공은, 첫째, 개별학문으로 신성장동력관련학과, IT관련학과, 어학관련학과, 호텔관광학과, 물류관련학과, 법학과 등이 있다. 둘째, 경쟁력차원에서 대학별 비교우위가 있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와의 연계와 지역강점이 있는 산업 또는 발전전략과 관련이 있는 학과와의 연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화 과정은 주로 3~4학년에 개설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 생각되지만, 대학 자율적인 교과과정 체제에 따라 4학년 과정에 집중을 시키면서 대학원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도 있다.

건국대학교(서울)²⁴와 숭실대학교 등이 시행하거나 계획에 있는 별도의 연계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계전공과정과 유사한 다전공 내지 부전공의 방법은 학생 스스로 특성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2) 특성화(specialty)

현재 무역학과 교과과정은 무역상무를 기반으로 국제경제와 국제경영이 보조하는 체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학과명칭을 변경하여 특성화를 유도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교과과정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과명칭 변경이 특성화보다는 신입생 유치를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과과정의 비차별성과 무의미한 학과명칭 변경에서 벗어나 지역별로는 지리적 위치와 특화산업, 지역발전 방향 등을 토대로 무역학과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대학별로는 소속 대학의 강점이 있는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분야를 선택하여 당해 분야의 특성화를 위한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편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학과의 분야별 특성화를 통해 무역학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수한 무역 전문인력 공급을 통해서, 그리고 소속대학에는 기존에 강점이 있던 분야의 상업화·수출산업화를 통한 실용

24) 건국대학교의 경우 국제무역학전공, 경영학과, 영문학전공, 중문학전공 등 4개학과가 연계하여 국제비즈니스연계전공을 개설하여 당해 과정을 이수 시 국제비즈니스 학사를 부여하고 있음

성 확보를 통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문영역의 특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대학에 강점이 있는 학문영역이 있는 경우의 사례로 경희대의 경우 호텔관광학과의 강점을 살려 관광·전시컨벤션 등 서비스무역 분야에 특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건국대의 경우 축산대와 부동산학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 무역분야와 부동산을 포함하는 투자관련 서비스무역 분야에 특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적 기준을 통한 특성화 가능성을 살펴보면, 인하대와 인천대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물류분야에 지역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항공물류서비스 분야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 양성에 특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남권의 경우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물류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영산대와 같이 해상 운송 서비스분야를 특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호남권의 경우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전문가 양성과 여수엑스포 유치를 기반으로 관광 서비스 분야에 특성화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V. 結 論

무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중요성으로 인해 1960년대 초반에 개설된 무역학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이 되어 한때 경영학과와 영문학과와 함께 3대학과로서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경영학·경제학과의 통·폐합, 통상관련 학부(과)로의 전환,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무역학과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교과과정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던 교과목들이 모두 전공선택으로 편제되거나 또는 교과목의 감소 등 개설 교과목의 슬림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대부분 대학들의 무역학 교과과정의 유사성

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교과과정의 경직성은 사회와 기업에서 바라는 무역 전문인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무역학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과명칭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과 교과과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학과명칭을 기존의 무역학과로 전환하여 학과명칭 단일화를 주장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범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학과명칭의 사용도 필요하다. 그러나 비슷한 교과과정을 유지하면서 명칭만을 변경하는 무의미한 특성화를 지양하고, 학과명칭과 교과과정의 일치를 통한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특성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국제무역환경 변화 및 사회와 기업의 니즈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무역학 교과과정의 전체적인 개편방향은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무역전문가, 국제마케팅전문가, 통상전문가, 서비스무역전문가, 국제물류전문가, 전자무역전문가, 지역무역전문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무역학 교과과정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특성화와 컨버전스를 제안한다. 즉, 글로벌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무역학 교과과정은 ‘특성화를 위한 학제간 컨버전스’ 또는 ‘컨버전스를 통한 특성화 추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먼저 컨버전스는 무역학 자체가 무역상무·국제경제·국제경영을 아우르는 복합학문이라는 점과 전술한 개편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역학과 역량만으로는 학문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무역학과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아닌 특성화 방향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인접학문 또는 관련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성화는 현재와 같은 교과과정의 비차별성과 무의미한 학과명칭 변경에서 벗어나 지역적 기준으로는 지리적 위치와 특화산업, 지역 발전방향 등을 토대로 무역학과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대학별로는 소속 대학의 강점이 있는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분야를 선택하여 당해 분야의 특성화를 위한 무역학 교과과정의 개편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학 교과과정의 특성화와 컨버전스는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무역학 교과과정의 특성화와 컨버전스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지 시차를 두고 선·후를 구분하여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및 논문]

- 강원진, “미국에서의 국제상학의 연구동향과 한국에서의 연구방향”,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2000.
-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요람”, 건국대학교 출판부, 1967, 1981, 1996, 1997, 2007년
- 김원배, “무역학과 교과 과정 현황과 방향 모색”,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2005. 3
- 김학민,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기반의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2004. 8.
- 노택환, “국제통상학의 학문적 범위와 교육체계”,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2-2, 2003. 2.
- 오원석, “무역상무의 연구방향”, 무역상무연구, 제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5
- 윤충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6.
- 이승훈,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 한국무역학회 제2차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3.
- 이호건 외, “학부제 시행에 따른 무역전공분야의 교과과정 개발”, 무역학회지, 제25권 제2호, 2000.
- 하명근, “우리나라 무역인력 양성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한국무역학회 제2차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3.
-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신표준교과과정의 수립을 위한 연구”, 2006. 12.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인력 양성 방향”, 2007. 10.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11,
- 한영수, “무역인력양성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무역학회 제2차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3.
- 한재필, “무역학의 원류발견을 위한 영국 노팅햄대학교 법과대학원과 한국

대학의 무역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1호,
2005. 3

홍성규, “일본대학의 무역교육분석을 통한 무역학의 정체성 확립방안”, 국
제상학 제19권 제3호, 2004. 9

홈페이지, 글로벌무역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된 19개 대학

ABSTRACT

A Study on a Direction of Modification of the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Curriculum for Global Trade Expert

Park, Kwang So · Yu, Kwang Hyun

In Korea, the major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introduced in the 1960s to supply trade expert to trading companies, and the heyday of the trade major was in the 1980s. However the trade major fell into decay from the middle of 1990s. The purpose of trade education in university is to supply high qualified employees to societies and companies. The problem is that companies have difficulties for recruiting of trade expert, on the other hand university graduates have few job opportunities. It has some discrepancies between education and field.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modification of the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curriculum for global trade expert. We research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departments' curriculums of GTEP universities. GTEP stands for 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started from 2006 which have charge of MOCIE and KITA.

First, in the title of department, a lot of former researchers have taken up the position to return "Trade" or "International Trade". We think more important fact is not the title of department but the curriculum, so we insist on a harmony between the department title and curriculums. The focus of modification of curriculum is to educate global trade expert, so we need to know about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nd companies' needs also.

Second, We propose the directions for modification of curriculum are "convergence" and "specialty". Trade major is a mixed study in nature

and trade major try to treat lots of subjects such as trade,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mmerce, logistics and marketing etc to catch up changing global business circumstances and companies' needs. So convergence of adjacent field is very important in study and training.

Specialty mean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for global trade expert. It is difficult to learn every knowledge and skills for employer's needs in 4 years and 140 credits. A students who has studied basic subject in trade, management, economics can choose 1 or 2 specialty subject such as trade and e-commerce, global market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commerce and policy, service trade, foreign language and cross culture etc.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convergence and specialty is not separation but harmony each other, so we propose to promote two concept together for modification of the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curriculum for training of global trade expert

Key Words : GTEP(global trade expert program), Department of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Curriculum of trade and international business, Convergence, Specialty